

오늘의 찬송 새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오늘의 말씀 요약 환난이 지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온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인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한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화 군대에서 높은 분이 방문한다고 해서 온갖 준비를 다 했다가 취소가 된 후 허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사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는 확실한 목적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 변함없는 말씀 앞에 모여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굳게 서야 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참된 통치자 (29-31절) 끔찍한 환난의 때가 지난 후, 징조와 함께 인자이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심판인 동시에,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역사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완성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32-35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며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성실한 제자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천지만물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동치며 변하는 세상의 상황이나 재물에 인생의 닳을 내리지 말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의 약속 위에 삶의 토대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삶의 적용점

- 두려워하지 않고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굳게 믿습니다.
-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웁시다.

기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상황,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6.03.17 **화요일** | 결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신앙 | 마태복음 23:25-39

오늘의 찬송 새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겉만 깨끗한 그릇과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셨으나 그들은 거부했기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예화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성도들은 일본인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있었지만, 십자가 복음의 빛 아래서 자신들도 철저히 타락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높아진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은혜로 속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내면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결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 (25-28절)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를 드리고 금식하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았으나, 그 마음 중심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 애쓰는 그들을 향해 안에는 썩은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결입니다. 내 안의 은밀한 죄악, 비교 의식,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속사람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품고 순종하는 삶 (29-39절) 종교 지도자들은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며 자신들의 의를 포장했지만, 정작 눈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끝까지 죄인들을 안으려 하셨던 애통하는 눈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랑에 머물지 말고, 끝까지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내게 돌이키라 명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적용점

- 종교적 행위로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 과거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묵묵히 순종합시다.
- 끝까지 죄인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주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부패했던 교만과 위선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사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주의 눈물 어린 사랑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실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026.03.18 수요일 |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 | 마태복음 24:1-14

오늘의 찬송 새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시기와 말세의 징조를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예화 교통사고로 마흔 번이 넘는 수술과 화상의 고통을 겪었던 이지선 교수는 사고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내면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육신의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련과 연단을 진정한 축복과 연결합니다. 연단으로 정화된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견고한 평안이자 진짜 축복입니다.

미혹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 (1-8절)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며,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 지진의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통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식과 징조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전하는 복음 (9-14절)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신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고난을 피하고자 서로를 배신하는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참된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묵묵히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점

- 화려함이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말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천국 복음을 이웃에게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무너져 내릴 세상의 헛된 자랑을 의지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와 혼란의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디며 붙잡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026.03.19 목요일 | 징조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 | 마태복음 24:15-28

오늘의 찬송 새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늘의 말씀 요약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화 한 은행원이 위조지폐 감별 훈련을 받을 때, 그는 가짜 지폐의 사례를 연구하는 대신 진짜 지폐의 촉감과 인쇄 패턴을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진짜의 특징을 몸으로 완벽히 기억하고 나니, 위조지폐를 만지는 순간 즉시 가짜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이와 같습니다. 혼합주의와 이단이 창궐하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순종과 주권 신뢰 (15-22절)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 지체 없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하십니다. 걸옷을 챙기거나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끔찍한 대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이 끝없이 길어 보일지라도,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즉각 순종해야 하며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인자를 바라봄 (23-28절) 환난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질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큰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골방이나 광야에 구원자가 있다는 거짓 소문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소수만이 아는 은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온 세상이 분명하게 목도할 우주적인 영광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과장된 영적 체험이나 이단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삶의 적용점

-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합니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합니다.
-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분별하고 오직 참된 복음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기도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영적으로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택하신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만을 소망하며 견고 하옵소서.